【1】 第18042號 【1955·2·21第3種郵便物認可】 【1964·1·1.技術番號가—2號】 The Dong-A Ilbo 【1920年4月1日創刊】 1980年5月26日 月曜日 ① 〔日刊〕

東亞日報

會長 金相万
發行人 李東旭
編輯人 朴權相
印刷人 金丑七

發行所
서울特別市鍾路區世宗路139
(郵便番號110)
東亞日報社

交換代表 ⑬5221⑬5231
編輯局 ⑭6103⑮1741
廣告問議 廣告接受 ⑬6107⑬6108
購讀申請 配達事故 ⑫6106⑰6460

購讀料 月定 1,500원 1部 80원

本報는 新聞倫理綱領및 그實踐要綱을 遵守한다.

탄생!
20배 보장
알뜰보험
대한생명

光州事態 9일째

한때 17개地域 번졌으나

光州·木浦제외 平穩찾아

光州시민들은 더이상의 유혈사태나 불편한일이 없도록 한시바삐 수습되어야 한다는데는 뜻을 모으고 있으나 과격한 행동을 계속하는 일부청년들이 있어 수습이 늦어지고 있다. 〈7면에 관련기사〉

光州시내는 6일째 교통차단과 통신두절로, 생필품부족이 심각한 실정이며 기타 시민생활도 큰불편을 겪고 있고 물자부족은 계속적인 물가앙등을 낳고있다.

또 시내의 모기관에서는 전반적으로 송사치료약품과 외약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으며 이때문에 예정된 일반환자의 수술이 모두 연기되고있는 실정이다.

한편 光州사태는 한때 光州를 중심으로 木浦 靈巖 羅州 和順 長興을 포함한 17개지역으로 확산된바 있으나 25일현재 光州와 木浦市를 제외한 전지역은 평온을 되찾았으며 정상적인 치안행정기능이 미치고있다.

계엄사령부는 26일 全南일원의 치안상태를 이같이 전하고 木浦시는 일부 비무장 시위가 있으나 점차 평온을 되찾고 있다고 밝혔다.

계엄사령부는 「戒嚴軍은 소요진원지인 光州市를 효과적으로 차단, 봉쇄함으로써 기타 全南일대는 25일현재 평온이 유지되고있다」면서 「光州市도 조속한 시일내에 평온을 되찾아 선량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수 있도록 노력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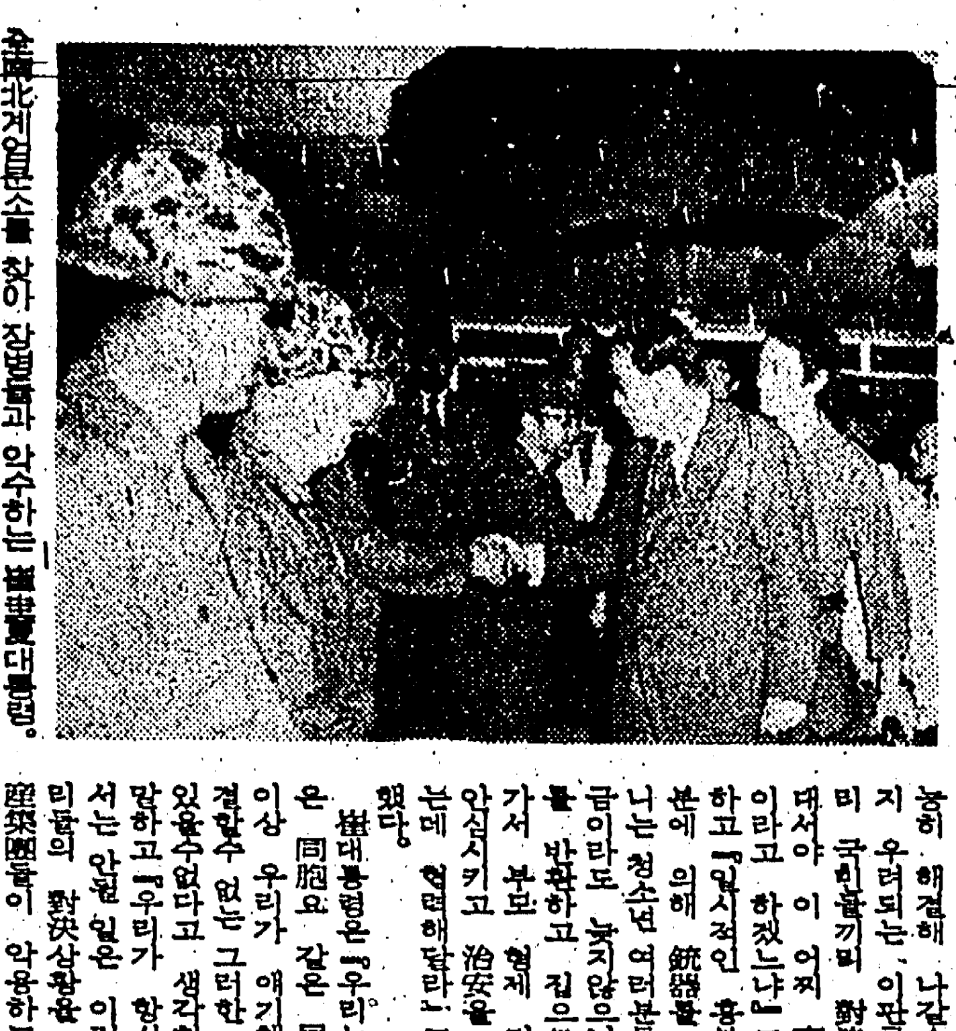
계엄군은 「선량한 국민의 인명피해와 재산의 손실을 막기위해 상당한 병력손실을 입어가면서 설득과 선무활동을 전개해왔으며 자위권행사도 가능한 억제해 왔다」고 밝혔다.

戒嚴司令部는 光州事態가 악화되기 시작한것은 「지난 21일부터 불순분자와 극렬분자들이 경찰관서와 예비군 무기고를 습격, 무기를 탈취, 극렬한 행동을 부리면서 사태가 악화되었다」고 말했다.

光州 特別取材班
▲社會部=金在坤차장(반장) 曺康煥차장 沈松茂 魚慶濬 崔孟浩 金忠根 金忠植기자 ▲地方部=金泳燁 辛光淵 洪健淳기자 ▲寫眞部=洪性革부장 黃鍾建 金寧方기자

光州事態 최대寬容…理性찾아야

崔大統領 현지特別談話 "일시적 잘못 不問에 붙일터"


全南北계엄분소를 찾아 장병들과 악수하는 崔圭夏대통령。

銃器반환 對話로 해결

長期化땐 國家安危 중대사태

崔圭夏大統領은 25일밤 光州사태와 관련한 特別放送談話를 발표, 「光州시민들이 냉정과 이성을 되찾아 슬기롭게 현재의 不安한 사태를 조속히 수습해주기 바란다」고 호소하고 「비록 일시적인 흥분이나 감정에 의해 잘못된 일이 있었다하더라도 정부는 최대한의 寬容을 베풀고 不問에 붙이겠다」고 말했다.

治安회복되면 즉각 救護品등 전달

崔대통령은 이날오후 급거 光州에 도착, 「光州시민에게 고하는 특별방송」을통해 이같이 강조하고 「오늘의 사태에대해 우리나라의 최고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崔대통령은 또 「이번의 사태의 원인이야 어쨌든 이러한 상태가 오래 계속될 경우 누구의 잘잘못이라는 것을 가릴 겨를도 없이 우리나라의 國家安危에관계되는 중대사태가 될 위험성마저 있는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어떤 문제가 있다면 對決을 통해서가 아니라 서로 對話를 통해 해결해야 할것」이라고 역설했다.

崔대통령은 「지금 여러가지 어려운 世界情勢속에서 그리고 國際經濟상황 역시 어려움을 겪고있는 이마당에 우리가 合心協力해서 일해나가도 국가적인 難局을 능히 해결해 나갈수 있을지 우려되는 이판국에 우리 국민들끼리 對決을 한대서야 이 어찌 文化國民이라고 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일시적인 흥분과 격분에 의해 銃器를 들고다니는 청소년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않으니 銃器를 반납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 형제 자매들을 안심시키고 治安을 회복하는데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崔대통령은 「우리는 다같은 同胞요 같은 民族들인 이상 우리가 얘기해서 해결할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수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될 일은 이러한 우리들의 對決상황을 北韓共産集團들이 악용하고자 할것임에 틀림없다는 사실」이라고 경고했다.

崔대통령은 「정부와 전국민은 光州시민을 염려하고 있으나 治安이 잡히지 않는 이마당에 준비하고있는 식량 의류 의약품 기타 구호품등을 전달할 길이 없다」고 전제, 治安이 확보되는대로 각종 生必品공급과 즉각적인 復舊작업에 나설것을 약속했다.

崔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이번 사태로 인해 희생된 사람은 말할것도 없고 그가족의 슬픔이 얼마나 크겠느냐」며 희생자들에게 弔意를 표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崔대통령은 이날 오후6시 대통령전용기로 光州市근교에있는 군부대에 도착, 全南北계엄분소장인 蘇俊烈육군소장과 張炯泰全南지사로부터 光州사태에대한 報告를 받고 「그동안 우리軍이 光州사태에 대처함에있어 희생을 내고 또 온갖 어려움을 견디면서 자제와 인내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데 대해 그노고를 깊이 치하한다」고 말하고 희생된 장병들의 영령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崔대통령은 「우리軍은 국법질서를 수호하며 치안유지에 주력하는 한편 북한공산집단의 도발책동을 봉쇄하기위해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光州사태에 임함에 있어서는 비록 난동의 소행은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우리 동포요 국민이니만큼 인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사태를 수습하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崔대통령의 이날 光州시찰에는 周永福국방 崔鍾浣건설 陳懿鍾보사 李光杓문공등 4개부처장관을 비롯, 李熺性계엄사령관 尹子重공군참모총장 崔侊洙대통령비서실장 徐基源청와대공보수석 李元洪민원수석비서관등이 수행했다.

이날 崔대통령의 光州시민에게 고하는 특별방송은 KBS라디오를 통해 이날밤 9시 10시 10시30분등 세차례에걸쳐 光州지역에 방송됐으며 밤10시45분께는 공민영합동의 TV를통해 전국에 방영되기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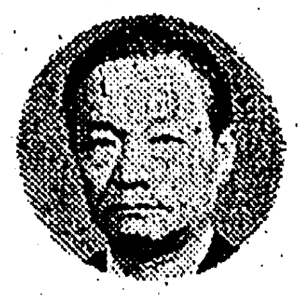
崔대통령은 이날밤9시10분께수행원과함께귀경했다.

北韓은 對南선동중지하라

李文公 "光州사태惡用企圖 不容"

정부대변인 李光杓문공장관은 26일 성명을 내어 「北韓공산집단은 최근 대한민국에대해 온갖 비방허위모략선전과 선동을 강화, 우리사회의 내부혼란조성과 국가전복을 위해 모든수단을 동원하여 발악적인 책동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그들의 어떠한 도발적 책동과 기도도 결코 성공할수 없을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대한민국전복을 위한 모든 책동을 즉각중지할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李장관은 「北韓공산집단은 최근의 우리 국내사태를 赤化企圖를위한 好機로 악용하기위해 지난25일 平壤시민군중대회를 개최하는등 光州지역소요를공연히지지선동하는데광분하고있으며 傀儡관제등 사회각분야에서의 대립을 조장하여 대중봉기를 선동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계속 책동하고있다」고 말하고 「이는 南北간에 상호비방을배제하여 신뢰분위기 조성을 기약한 7·4공동성명을정면으로 유린하는 행위일뿐 아니라 겉으로는 平和統一의 허울좋은 구호를 내세우며 南侵의 의사가 없다고 떠벌리면서도 對南赤化統一의 망상만을 좇고있는 그들의 정체를 다시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낸것」이라고 비난했다.


李文公長官

李장관은 「南北총리대화실현을 위한 실무대표접촉이 진행중인 차제에 그들이 對話상대방에 대해 비방 중상을 일삼고 내부전복을 획책하는것은 南北對話마저 對南赤化의 수단으로 간주하고있다는 배신적인 행위로 의심받아 마땅하다」면서 「정부와 국민은 최근의 국내사태를 誤判하거나 악용하려는 北韓공산집단의 어떠한 企圖와 책동도 결코 용납하지않을것임을 재삼 강조해둔다」고 말했다.

다음은 李장관이 밝힌 최근 北韓의 對南비방 선동사례.

▲北韓공산집단은 올해들어 休戰線과 非武裝地帶내외에서 대소87건의 총격 도발을 자행하고 간첩남파를 강화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그들이 우리사회 각계층과 지역간의 대립을 자극하고 정부와 국민을 이간시키려는 유언비어를 유포하고자 我側에 살포하고 있는 불온전단은 작년同期간에 비하여 10배이상 격증되었으며 최근 「統革黨목소리」를 포함한 北韓의 모든 放送은 正規放送내용을 제쳐두고 對南誹謗 煽動방송에 동원되어 지난 4개월간 무려 3천7백50건의 비방방송을 하고있다.

▲지난 5월18일자 「조선로동당」과 각종 어용단체명의의 소위 「聯合聲明」과 5월23일자 「조선중앙통신사성명」은 大韓民國정부의타도와 對南赤化統一을 위한 결정적인 시기의 조성을위한 大衆蜂起의 책동이 北韓공산집단의 당면목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제 「平和」의 허울마저 벗고 暴力革命을 공공연히 선동하는데 광분하고 있는 北韓공산집단의 최근작태는 大韓民國과 國民에대한 정면적인 도전으로 간주될수밖에 없다.

▲지난 30여년을 하루같이 金日成 一人族閥獨裁體制와 개인우상숭배사회를 구축해온 北韓공산집단이 해외에서까지 「韓國의 自由와 民主主義」운운하는 구실로 그들의 對南폭력혁명선동을 정당화해보려는 책동을 벌이고 있는것은 「도둑이 몽둥이든 격」으로서 세계인의 조소거리가 되고있다.

外務次官 金東輝씨

정부는 26일자로 金東輝주「이란」대사(사진)를 외무부차관에 임명했다. 李坡容차관은 歐洲지역 공관장으로 내정됐다.

◇金次官약력 ▲慶南梁山출신(48세) ▲서울大文理大卒 ▲독일「본」대학수학 ▲駐日 駐美대사관참사관 ▲외무부歐美국장 ▲〃美洲국장 ▲〃경제차관보 ▲文公部次官 ▲駐「이란」大使

法務次官 鄭泰均씨

정부는 공석중인 法務部次官에 鄭泰均釜山지검검사장(사진)을 승진발령했다.

◇鄭차관 약력 ▲全南務安출신(59세) ▲52년 서울대법대졸 ▲51년 제1회 사법고시합격 ▲53년 서울지검검사 ▲64년 서울지검부장검사 ▲72년 서울지검차장 ▲75년 춘천지검검사장 ▲79년 부산지검검사장

오늘의 小史

26일 ▲群山, 馬山, 城津港개항(1899) ▲美軍政廳인신매매금지령공포(1946) ▲닉슨, 모스크바에서 SALTⅠ협정체결(1972) ▲이스라엘, 「엘아리시」이집트에 반환(1979)

世界 25일

地名	기온C	톱뉴스
東京	19~24	日, 올림픽불참 결의
뉴욕	17~26	國務, 이란 인질석방관철
런던	12~13	日, 올림픽 불참
파리	17~18	로케트 발사실패

美航母 코럴 시號 韓國海域으로

내달中旬까지 駐屯命令

【워싱턴UPI聯合】 「필리핀」으로부터 「샌프란시스코」로가던 美國항공모함 「코럴 시」호는 항로를 韓國수역으로 바꾸어 그곳에서 6월중순까지 주둔하라는 명령을받았다고 美국방성소식통들이 24일 말했다.

이명령은 만일 北韓이 이용하려한다면 강경한 대응에 직면하게될 것이라는 22일의 美國측 경고가 있은후 내려졌다.

50대이상의 전폭기를 싣은 이 5만t급 항공모함은 현재 日本해안 앞바다에서 기동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또다른 美항공모함 「미드웨이」호와 교대할때까지 韓國수역에 머물러있을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한편 23일 일본 「오키나와」(沖繩)의 「카데나」美공군기지에 도착한 美공중경보통제기 2대는 정찰을 위해 韓國으로 떠날 준비를 완료했다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오만·앙골라 原油값 引上

【머스캣(오만)UPI聯合】 石油輸出國기구(OPEC)産油國에 이어 非OPEC産油國인 「오만」과 「앙골라」가 지난1일부터 소급하여 原油가격의 인상을 단행했으며 「아랍」토후국연방은 천연가스가격까지 6%올림으로써 지난주 「사우디아라비아」의 油價인상으로 촉발된 에너지가격引上波는 저의 매듭을 지어가고 있다.

油價추가부담 올2百億달러 消費國

【런던聯合】 세계 原油가격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産油國들의 잇단 인상조치를 계기로 금년말까지 계속 오름세를 보임으로써 소비국들에 연간 2백억달러의 추가부담을 안겨주게될 것이라고 석유업계소식통들이 분석했다.

횡설수설

중공은 지난18일과 21일 두차례에 걸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그들의 영토밖으로는 처음으로 시험발사했다. 北京당국은 南태평양의 公海수역에 착탄된 이 시험이 성공리에 완료되었다고 발표했지만 「워싱턴」의 분석가들은 이 ICBM이 당초 예정되었던 목표지점에 3백20km미달된 점을 지적함으로써 군사적 능력보다는 소련을 겨냥한 「政治的發射」라는 뉘앙스를 짙게 풍기고 있다. ◆사실 중공은 이미 16년전에 原爆의 첫실험에 성공한 이래 지금까지 모두 25회의 核실험을 해왔고 67년에는 水爆, 70년에는 人工衛星의 발사와 회수실험에 성공한바 있으므로 多段式 ICBM의 全射程(풀 스케일) 실험은 어차피 예상되었으며 어면 의미로는 오히려 때늦은 감마저 없지 않았다. 소련의 「아프간」침공과 「티토」의 死去등으로 국제정세는 새 局面이 전개되고있고 요즘 일본政局이 극도로 昏迷함에도 불구하고 華國鋒중공수상은 27일 당초 예정대로 訪日한다. 核에는 특히 알레르기반응을 보이는 일본이 발사중지를 요청한것을 묵살한채 사흘간격으로 거푸 장거리 ICBM의 시험을 강행한 중공의 속셈은 국제무대에서 그들의 發言權을 높이려는 것이 뻔하다. ◆長征3호(CSS X 4호)로 불리는 이 ICBM은 1만km가까운 射程과 메가톤급 核彈頭의 장착이 가능하므로 발사실험에 다소의 誤差가 생겼다하더라도 戰略核무기임에는 틀림이 없다. 중공이 核大國이 되면 인접국인 한국 일본 인도 「파키스탄」등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은 부인 못하며 중공과 無條約상태에 있는 소련이나 「베트남」역시 例外는 아니다. ◆거기에 있는 제2단계 전략무기제한 협정(SALTⅡ)도 장차는 중공을 제쳐놓기 어렵게 되었다. ◆그렇다고 중공이 당장 核軍備확장으로 치달을지는 의문인바 그것은 그들의 財政상태에 여유가 없고 ICBM의 사정이 「모스크바」뿐 아니라 미국의 西岸까지 미칠경우 미국역시 긴장하지 않을수 없겠기 때문이다. 중공이 戰略核의 對蘇抑止力을 갖게 된이상 通常戰力을 강화하는 국방근대화를 촉진할것이 예상된다. 아무튼 평화를 바라는 인류의 염원은 아랑곳없이 核의 공포는 增幅되어만 가고 있다.

無影塔

金載圭등 絞首刑집행。 말썽은 地上에서 말썽없는 永遠으로.

★

光州의 無政府상태 9일째。 強穩對立소식에 明暗信號가 明滅.

★

美, 「팔레스타인國」창설支持로 轉換。 石油波濤를 반回敎勢의 進軍鼓.

★

서울驛서 市民申告로 南派間諜체포。 後方의 反共前線에 異狀無.

담배를 끊느냐?
줄이느냐?
무엇이 문제인고

담배끊는약
토바논
50T/6000원
동일신약공업㈜
445)3141 447)3101, 3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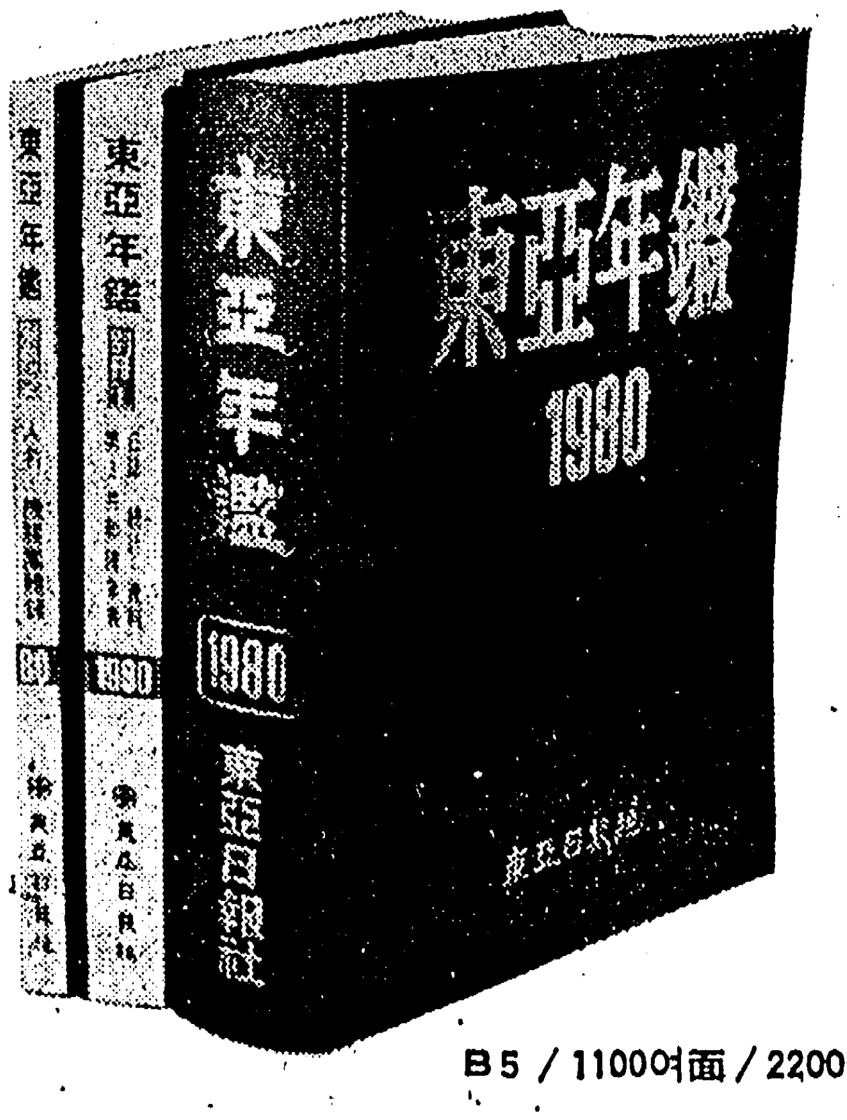
政治·經濟·社會·文化部門의 광범한
資料와 統計를 한데묶은 東亞年鑑

東亞年鑑 1980年版

別冊 1 日誌·統計·資料
第3共和國 年表
別冊 2 人名·機關團體錄

特輯 에너지危機와 韓國·第3共和國年表

成長途上의 韓國經濟를 휩쓴 에너지波動의 深層分析과
19年동안의 第3共和國의 발자취를 더듬은 年表와 함께
1979年을 總整理한 綜合資料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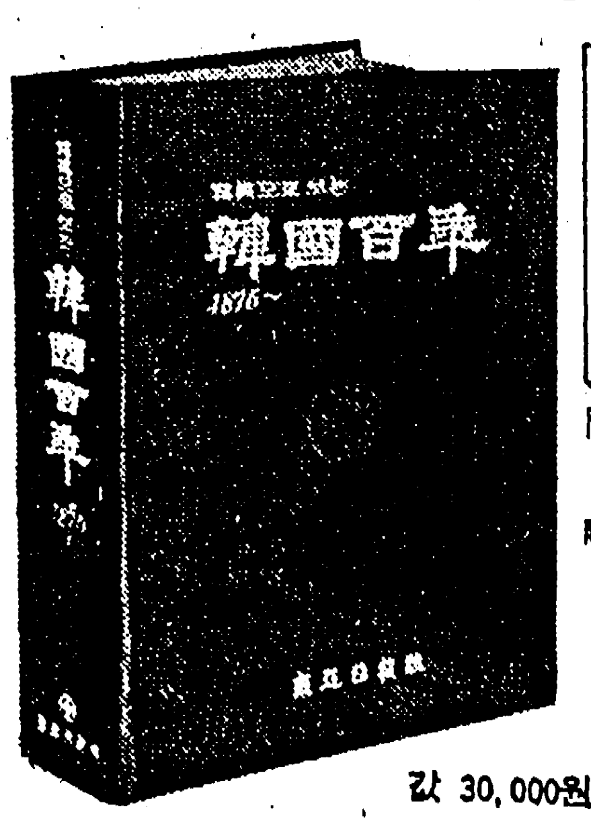


B5 / 1100여面 / 22000원
東亞日報社
販賣問議 70-6460
70-9426~7

開港이후 100年을
記錄寫眞으로 엮은 韓國史

寫眞으로 보는
韓國百年

●未公開寫眞 다수를 포함 3,300여장 收錄
●學校·圖書館·會社·知識人·一般家庭의 書架에 貴重한 한卷!



第1篇 國土 100年
第2篇 近代化의 밑뿌리
第3篇 獨立抗爭 36年
第4篇 光復 33年
第5篇 産業·經濟 한世紀
第6篇 生活·社會 한世紀
第7篇 文化·体育 한世紀
第8篇 北韓 30年

附錄 ① 韓國百年 年表
② 韓國近代人物 100年
③ 別冊 索引
關係論文10篇·座談會4篇 收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韓國近代史의 百科事典!

再版 發賣中!

값 30,000원
A4大型版 / 125特아트紙 1000여페이지 / 高級옵셋印刷 / 金箔布로스洋裝製本 / 金箔表裝케이스 / 비닐백포장의永久保存裝幀

東亞日報社 發行
販賣問議 70-6460·73-8808